

문화유산·자원 풍부...전남만의 콘텐츠산업 생태계 구축 시급

전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3> 전남 콘텐츠산업의 미래

전남은 콘텐츠 산업의 매출, 인력 등 규모면에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 다양한 문화유산과 자원이 있어 콘텐츠 소재가 풍부하고, 빛가람혁신도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입주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문 인력 양성, 창업 기회 제공, 기업 고도화 지원 등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2017년 문을 연 전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센터)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음악·영화·애니 분야 시작 단계 전문인력 키우고 맞춤형 지원을 수도권 기업 유치도 서둘러야

지난 2020년 서울을 제외한 전국 콘텐츠 사업체 4684곳을 대상으로 한 '지역콘텐츠산업 및 창작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체 경영, 산업연계 지원 프로그램, 주거 및 복지 등 전반적인 만족도에서 전남은 3.07로, 전국 평균(3.14)에도 미치지 못했다. 가장 높은 부산(3.36)과의 격차도 컸다.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캐릭터, 지식정

보, 콘텐츠 솔루션 등 콘텐츠 산업의 매출도 518억 원에 불과했다. 콘텐츠 솔루션(249억원), 게임(89억원), 방송 캐릭터(89억원)를 제외하면 모두 50억원 미만이었으며, 특히 음악(9억원), 영화(8억원), 애니메이션(3억원) 분야는 시작 단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이다.

따라서 도약기 단계에 있는 업체가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정책을 강화하면서 양성된 전문 인력들이 지역 내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업체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역 대학, 취업 지원기관, 관련 기업 등이 서로 연계될 수 있는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도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센터는 이에 따라 콘텐츠 산업 산·학·연·관의 네

트워크 구축,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 수도권 콘텐츠 기업 전남 이전 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실감콘텐츠 및 애니메이션 분야의 선도기업 유치, 이들과 지역 기업과의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고도화 지원 등도 검토중이다.

각 시·군의 특화 콘텐츠를 활용한 진흥원 내 문화 콘텐츠 사업과도 연계해 전남도내 콘텐츠 기업의 차별성을 두는 방안, 여러 부문과 콘텐츠 장르들의 경계를 허물어 핵심 개발인력들이 기능성 게임·실감콘텐츠·실버콘텐츠 등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 등도 고민하고 있다.

센터는 우선 내년부터 ▲단계별 맞춤 지원 ▲입주기업 대상 사업 다변화 지원 ▲해외 시장진출 지

원 등을 재개하면서, 동시에 웹드라마와 실감콘텐츠 등을 특화분야로 선정해 전문인력 양성에 나설 예정이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준근 원장은 "전남이 가진 장점을 키우고 단점을 극복하면서 타 지역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콘텐츠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융합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기업 성장단계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우선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역 기업이 재미있는 콘텐츠, 눈길 받는 콘텐츠, 누구에게나 어필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자원봉사자 대회 이용섭 광주시장이 6일 오후 서구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2021 광주자원봉사자대회'에 참석해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 김재규 광주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및 자원봉사자들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김영록 지사 "으뜸전남 미래전략 국정과제 반영을"

원팀으로 차기정부 채택 당부

김영록 전남지사가 6일 2022년 국비예산 사상 첫 8조원 돌파 등 올해 도정 성과에 대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전남의 미래비전을 담은 '으뜸전남 미래전략'이 차기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되도록 원팀이 돼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12월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으뜸전남 미래전략 도민보고회를 통해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 전남 비전을 선포했다"며 "이 비전은 전남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알찬 내용으로 채워진 만큼 반드시 차기정부 국정과제로 반영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도정 전 분야에서 거둔 성과는 도청 공무원 한 명 한 명이 모두 제작자(PD)이자 작가로서, 또한 배우로서 만능 역할을 잘 해줬기 때문"이라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올 한 해 전남도는 지난 2월 대통령의 뉴딜투어 1호 행사를 신안 임자대교에서 열어 세계 최대 해

상광역시 조성 계획을 포함한 '전남형 뉴딜' 전략보고 및 전남형 상생일자리 협약식 등을 진행, 첫 과실을 국민 앞에 내놨다.

이후 한전공대특별법 제정과 국립 한국섬진흥원 유치, 여순특별법 제정, 신안 비금-암태 연도교와 여수-남해 해저터널 등의 제5차 국도-지방도 건설 계획 반영 등 도정 모든 분야에서 고무 좋은 실적을 거뒀다.

여기에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국제농업박람회, 김대중평화회의 등도 국제행사의 면모를 과시하며 모두 성공적으로 치렀다는 평가를 받았다. 외국의 직접투자도 1억9500만 달러를 기록해 2011년에 이어 10년 만에 대통령표창을 받았고, 해양쓰레기 제로화를 통한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에 앞장서 역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 정부예산에 8조3914억원이 반영돼 사상 첫 8조 원 시대를 활짝 열었다. 이는 전년보다 72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내년 1250억 관광·문화 투입...관광객 7000만 시대로

2022~2023년 전남 방문의 해 미디어아트 명소 여수에 등지 고흥에는 백리섬섬길 매력

2022~2023년을 전남 방문의 해로 선포한 전남도가 연 관광객 6000만명 시대 회복을 넘어 7000만 시대로의 도약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2년째 이어진 코로나 19 사태로 관광산업을 비롯한 지역 사회 전반이 위축됐지만, 포스트코로나 시대 전남 지역 경제 성장의 한 축으로 관광산업을 점찍고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일 찾은 여수와 고흥은 관광 전남의 매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남도의 먹거리와 남해가 품은 천혜의 자연경관, 그리고 새롭게 들어선 관광자원이 어우러진 이들 지역에는 코로나 19 유행 상황에서도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

졌다. 여수는 지난 8월 문을 연 '아르떼 뮤지엄'이 코로나 속 관광객 몰이에 한창이었다. 아르떼 뮤지엄은 여수엑스포 국제관에 등지를 뜬 국내 두 번째 몰입형 미디어아트 상설 전시관이다. 대표적인 해양관광도시 여수에서는 오션(OCEAN)이라는 테마로 여수 바다와 자연경관, 서양미술사 대표작품을 포함한 12개의 미디어아트가 1400평 공간에 펼쳐진다. 여수 해상케이블카, 유람선, 예술랜드 등 여수 대표 관광자원도 여전히 매력적이다.

섬과 육지, 섬과 섬을 연결하는 연륙·연도교도 전남이 자랑하는 새로운 관광자원이다. 그중에서도 여수와 고흥 섬들을 잇는 해상교량길인 '백리섬섬길'이 주목받는다. 백리섬섬길은 여수와 고흥지역 섬 10곳과 육지 2곳을 연결하는 교량 11개와 섬길을 이룬다. 지난 2005년 백야대교, 2015년 화태대교가 완공됐고, 지난해 2월 서쪽에 몰려 있던 조발도-문병도-남도-적금도를 잇는 해상 교량 5개

가 개통했다. 남은 4개의 교량은 2028년까지 완공 예정이다.

2022~2023년을 전남방문의 해로 선포한 전남도는 장기적인 안목 아래 관광산업 기반을 다지기 위해 사업비도 대대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당장 전남도가 내년 국고 예산으로 확보한 문화·관광 분야 사업비는 39개 사업에서 1253억원에 이른다. 총사업비는 1조1208억원 규모. 대표적인 신규 사업은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사업으로 내년 예산에 연구용역비 15억원을 확보했다.

전남도는 10년에 걸쳐 총사업비 3000억원을 투입해 청정 남해안의 해양자원을 관광산업과 연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해남 오시야노 관광단지, 영광 관광단지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비 33억원, 호텔-리조트 조성사업비 108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 지지부진했던 관광단지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 중기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효과'

미세먼지 68%, 총탄화수소 55% ↓

광주시의 중소기업 대상 노후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교체비용 지원사업이 대기질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가 올해 교체비용을 지원한 방지시설 43곳의 교체 전·후 대기오염배출농도를 분석한 결과, 방지시설 교체 전 먼지 평균농도가 4.28mg/Sm³에서 교체 후 1.29mg/Sm³으로 67% 저감됐고, 총탄화수소는 74.74ppm에서 35.75ppm로 55% 줄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사업자의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부터 올해까지 155곳에 153억원을 지원했다.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교체와 사물인터넷(IoT) 감시시설 설치비의 최대 90%까지 국·시비로 지원(2977만원~4억5000만원)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중소기업의 운영비 절감 효과 등 경제적 부담을 덜어줬다.

광주시는 내년도도 국비 등 예산 58억원을 확보해 50여곳에 지원 예정이다.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이 있는 중소기업장은 내년 1월 중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한 뒤 접수기간 내 신청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마당



부여사비 향작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ISO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